

韓·獨 科學協力 具體化

第1次 科學協力 混成委 開催

粉末冶金, 結晶化學 等 課題選定

한국과학원과 막스 프랑크
서울공대와 아헨공대 共同研究키로

우리나라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科學協力增進을 위한 第1次 韓·獨 科學協力混成委員會가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西獨 Bonn에서 열렸다.

이번 會議에 한국측 代表로는 首席代表로 김형기 한국科學財團事務總長(科技處振興局長), 김재관 韓國標準研究所所長, 김영걸 한국科學院敎務處長, 채영복 KIST有機化學 제2 연구실장, 윤덕용 한국科學院副敎授등이 參席했으며 서독측에서는 首席代表로서 독일연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장이며 Bonn대학교수인 Dr. H.K. Erben, Privatdozent Dr. D.Eikemeier (Bonn대학), Professor Dr. Th. Hahn(아헨대학 結晶學研究所長), Professor Dr. G. Petrow(막스·프랑크 金屬研究所 粉末冶金研究責任者), Professor Dr. J. Ruge.(브라운 슈바이크대학 용접기술연구소장), Professor Dr. E. Vogel(켈른대학 有機化學研究所長), Dr. habil. L. Wiedecke(서독연방표준연구소 국제부장), Dr. C.H. Schiel(D.F.G. 사무총장), Dr. J. Wiercimok(D.F.G. 국제부장) 이 參席했다.

韓·獨 科學協力 混成委員會는 1974년 6월 金澄基 국장(당시 技術協力局長)이 韓·獨 經濟協力會議 참석차 Bonn에 訪問時 D.F.G.(독일연구협회)의 제의로 작년 8월 14일 D.F.G. 사무총장 Dr. Schiel이 한국을 방문한 후 韓獨間의 科學協력을 위한 混成委員會 設置 運營을 제의하고 同年 12월 15일에는 과학협력 추진을 위한 자서(안)제시 및 혼성위원회 개최가 요청되어서 비

롯된 것이다. 이에 科技處는 금년 1월 12일 D. F.G.간의 양해각서 교환에 대하여 外務部의 동의를 얻어 제1차 혼성위원회를 4월이나 5월에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한편 D. F.G.는 6월말이나 7월초에 서독 "본"에서 개최하자는 제의와 함께 5월 26일 D.F.G.로부터 혼성위원회 회의 개최일자 및 참가대표자 통보요청으로 마침내 추진된 것이다.

이번 회의는 科學技術處의 후원을 받아 韓國科學財團(KOSEF)과 독일연구협회(D.F.G)간에 과학협력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協力方案을 정립하기 위한 모임으로, 과학협력 양해각서가 교환되었고, 양국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공동연구 과제, 공동세미나 등 협력우선분야를 선정 토의했으며 7일부터 16일까지는 서독의 大學및 研究機關을 방문하고 협의를 가졌다.

이번 會議중 金澄基 한국과학재단사무총장과 독일의 Dr. Schiel(D.F.G. 사무총장)은 과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署名. 交換함으로써 한국 과학재단과 독일연구협회간에 구체적인 과학기술 협력방안이 합의되었다.

지금까지 原則적으로 合議된 共同研究分野로서는 1. 粉末冶金 분야중 Liquid phase Sintering에 관한 연구로, 한국과학원과 막스·프랑크(Max Planck) 金屬研究所間의 共同研究와 2. 그 망상구조 규산염(Framework silicate)에 관한 結晶化學의 研究分野에 있어서 아헨공과대학의 結晶學研究所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정수진 박사)간에 共同研究 等 10여개 공동연구 과제이다

이들은 다시 共同委員會를 開催해서 共同協力 方案으로 材料科學, 海洋 및 地學, 物理學 · 化學 · 生物科學中 선택분야, 工學中 선택분야를 선정해서 과학연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相互支援과 양국관련분야 전문가간에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 문헌교환, 양국각의 과학외교역활 수행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독일연구협회 즉 D.F.G(Th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는 연방정부와 洲정부에서 자금지원 받아 운영되는 (미화로 3억 \$ 이상 연구비가 지원되는) 獨逸최대의 研究財團이다.

이 회의중에 합의된 과학협력을 위한 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독일연방공화국 독일연구 협회의

과학협력을 위한 협약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처와 독일연구협회는 과학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개발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1. 쌍방은 과학연구 분야에 있어서 그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상호 관심있는 과학연구 문제들의 해결에 있어서 서로 지원한다.

2. 쌍방은 과학단체와 연구원들간의 경험교환을 장려하고 과학정보의 문헌의 교환에 있어서 서로 협조한다.

3. 쌍방은 연구원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며 연구원들이 접수국의 법에 따라서 접수국의 연구소, 문서기록보관소, 도서관과 기타 과학단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4. 이들 공동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것을 목적으로 쌍방은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혼성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하고 그 기능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가. 쌍방의 과학협력 일반정책을 작성.

나. 2년간의 협력사업 계획과 수행방법 작성
다. 양국간의 과학연구에 대한 당면과제의 연구와 상호 관심있는 공동연구과 제 수행을 위한 가능성 타진

라. 상호 관심 있는 특정분야에서 달성된 과학연구 결과의 평가

마. 양국에서 과학연구 계획 수립방법과 접근 방법의 연구

5. 양측은 위원회는 각국 수도에서 1년에 1회 교대로 회의를 개최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였다.

6. 이 양해각서는 쌍방의 서신통의로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7. 이 양해각서는 두 협력채결단이 서명하고 이들의 각 본국의 공식 승인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각서는 5년간 유효하며 그후에는 이문서의 만기 3개월전에 어느 한측이 서면 종결 통보를 하지 않는한 자동적으로 매년 연장된다.

8. 이 양해각서는 2개의 정본을 영어로 작성하였다.

서명일자 1977년 7월 4일

대한민국 과학재단 독일연방공화국연구협회 사무총장 김 형 기 사무총장 Dr. C.H. Schiel

양국은 상호 관심있는 사업을 아래와 같은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가. 국부적 중요성 보다는 일반적 과학적 관심이 있는 사업

나. 兩國 研究員들에게 關心이 있고 專門分野의 下級研究員에게도 적합한 사업

다. 現事業이나 施設를 利用하기 위하여 進行中이거나 計劃된 研究活動과 關聯이 있는 事業

라. 韓國실정에 특히 부합되는 事業